

전체 주제:  
로마서 5 장부터 8 장까지 – 성경의 핵심  
메시지 3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기 위하여 아름답게 되는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의 과정임  
성경: 롬 6:19, 22, 앱 5:25-27, 계 19:7-9, 살전 5:23, 아 8:13-14

I.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되고 속된 모든 것과 다르고 구별되는 분, 곧 거룩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적셔지는 것이다 – 살전 4:3 상, 베전 1:15- 16, 앱 1:4-5, 5:25-27.

II. 성경에는 거룩하게 됨의 세 방면이 있다.

-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회개하고 믿기 전에 그들을 찾으시는 그 영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다 – 베전 1:2, 비교 뉘 15:8-10.
- 믿는 이들이 믿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위치적인 거룩하게 하심이 있다 – 히 13:12, 9:13-14, 10:29, 비교 뉘 15:4-7.
- 믿는 이들의 그리스도인 생활의 과정 전체 안에 그 영의 기질적인 거룩하게 하심이 있다 – 살전 5:23-24, 롬 15:16 하, 6:19, 22, 비교 뉘 15:11-32, 롬 5:10, 계 22:14, 벤후 1:4.

III. 예베소서 5 장 25 절부터 27 절까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전체를 세 단계로 계시한다.

- 과거에는,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법리적인 구속을 위해 그분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 주셨다 –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 하십시오.” – 앱 5:25.
- 현재에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분의 배필이 되도록 교회를 그분의 요소로 적시심으로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하고 계신다. 이것이 신부를 아름답게 하고 신부를 준비하는 유기적인 구원이다 –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 앱 5:26.
- 장래에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만족을 위하여 교회를 그분의 배필로 자신 앞에 세우실 것이다 –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 이것은 신부의 준비를 위한 우리의 영광스럽게 됨이다 – 앱 5:27.
- 과거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그분 자신을 주셨다. 현재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계신다. 장래에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만족을 위하여 교회를 그분의 배필로 자신 앞에 세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교회를 자신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다.

IV. 회복 안에서 주님의 주된 일은 그분의 신부를 준비하시는 그분의 참된 일이다. 예베소서 5 장 26 절에서 말하는 지속적이고도 기질적인 거룩하게 됨을 떠나서는 신부가 준비될 길이 없으므로 요한계시록 19 장 7 절부터 9 절까지가 성취될 길이 없다.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과정(살전 5:23-24)은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기 위해 우리가 아름답게 되는 유기적인 구원의 과정이다.

-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신다. 신성한 관념에 따르면 여기에서 ‘물’은 흐르는 물로 예표된 하나님의 흐르는 생명을 가리킨다(출 17:6, 고전 10:4, 요 7:37-39, 계 7:17, 21:6, 22:1, 17). 우리는 지금 그렇게 씻는 과정 안에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 B. 에베소서 5 장 26 절에서 헬라어로 ‘씻는’은 직역하면 ‘물두멍’이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땅에 속한 더러운 것들을 씻기 위해 물두멍을 사용했다(출 30:18-21).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우리는 성경을 펴야 하고 말씀 안에 있는 물두멍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 C. 바울은 말씀과 말씀의 씻는 과정에 대해 말할 때 헬라어로 ‘레마’를 사용한다(엡 5:26). ‘로고스’는 성경 안에 객관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레마’는 어떤 특정한 경우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막 14:72, 루 1:35-38, 5:5, 24:1-8).
- D.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영이시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씻는다. 이것은 항상 있는 말씀인 로고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레마, 즉 주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즉각적인 말씀을 가리킨다 — 마 4:4, 요 6:63, 계 2:7, 22:17 상, 비교 사 6:9-10, 마 13:14-15, 행 28:25-31.
- E. 레마는 우리에게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것을 계시한다. 그것은 우리가 처리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에서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놋으로 된 물두멍은 반사해 내고 드러낼 수 있는 거울이었다 — 출 38:8). 우리 각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 F. 우리가 항상 보배롭게 여기는 한 가지는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이고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생명 안에서의 참된 성장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는 것에 달려 있다. 우리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만이 참된 영적 가치가 있다 — 히 3:7-11, 15, 4:7, 시 95:7-8.
- G. 우리의 기도의 핵심 요점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망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의 배필인 신부를 갖고자 하시는 그분의 마음의 갈망에 따른 영원한 경륜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한다 — 계 2:7, 비교 삼상 3:1, 21, 암 3:7.
- H. 매우 실지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임재는 그분의 말씀하심과 하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가 우리 속에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생명 주시는 영의 임재이다.
- I.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기질 안에 있는 옛 요소를 대치하기 위해 우리 안으로 새로운 요소를 넣어주는 깨끗하게 하는 물이다. 이러한 신진대사적인 깨끗하게 함은 생명 안의 참되고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그것이 기질적인 거룩하게 됨과 변화의 실재이다.
- V. 에베소서 5 장 27 절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결국 하나님을 표현하는 “점과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임을 계시한다.
- A. 신부의 아름다움은 바로 교회 안으로 일해 넣어지시고 교회를 통하여 표현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온다. 우리의 유일한 아름다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부터 비추시는 것이다 — 사 60:1, 5 상, 고후 3:15-18, 비교 출 28:2.
- B. 신부가 준비되었다는 것은 신부가 “성도들의 의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계 19:8). 이 세마포는 신부의 아름다움이다
- C. 결혼식 날에 신랑은 신부의 역량보다 신부의 아름다움을 훨씬 더 관심한다. 주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성을 통해 표현되는 그분 자신의 아름다움을 주로 관심하신다. 우리는 준비되어 그분의 사랑스런 신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아름답게 되어야 한다.
- D. 주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으며 읊조림으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때마다(엡 6:17-18, 시 119:15), 주님은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시며 우리는 그분에 의해 아름답게 되어 그분의 아름다운 집이 되며 그분도 아름답게 되실 수 있다(시 27:4, 고후 3:18, 사 60:7 하, 9 하, 13 하, 19 하, 21 하).

- E. 에베소서 5 장 26 절의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은 주로 점과 주름들을 처리한다. 여기에서 점이란 타고난 생명에 속한 어떤 것을 상징하고 주름은 늙음과 관계가 있다. 오직 생명의 물만이 생명의 변화에 의해 그러한 결점들을 신진대사적으로 씻어낼 수 있다..
- F. 거룩하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적셔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다. 흠이 없다는 것은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것으로서, 옛사람의 타고난 생명에 속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다 – 비교 아 4:7.
- G. 또한 교회가 “그 같은 것들이” 없게 된다는 것은 교회가 ‘그러한 결점’을 갖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뜻 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도 교회에 대하여 반대하는 말을 할 수 없는 곳으로 교회를 이끄실 것이다 – 앱 5:27.
- VI. 에베소서 5 장 26 절과 27 절은 아가 8 장 13 절과 14 절에 부합한다. 두 부분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갈망을 가진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되는 것을 계시한다 – “동산들에 거하시는 이여, 나의 벗들이 당신 목소리에 귀 기울이니 나도 그 목소리를 듣게 해 주세요. 내 사랑하는 이여, 속히 오셔서 향기 그윽한 산들 위에 있는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처럼 되어 주세요.”
- A. 아가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추구자는 그분의 동산들인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시는 분께 그들의 벗들이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동안 자신도 그분의 목소리를 듣게 해 주시기를 구한다 – 아 8:13, 비교 4:13-16, 5:1, 6:2.
1. 이것은 그리스도의 연인들인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신 그분을 위해 일할 때 언제나 그분께 귀 기울이며 그분과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 뉘 10:38-42.
  2. 우리의 생활은 주님의 말씀에 달려 있고 우리의 일은 주님의 명령에 달려 있다(계 2:7, 삼상 3:9-10, 비교 사 50:4-5, 출 21:6).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왕(사 6:1, 5), 우리의 주님(고후 5:14-15), 우리의 머리(골 2:19), 우리의 남편(고후 11:2)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계시나 빛이나 개인적인 인식이 전혀 없을 것이다. 믿는 이들의 생활은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엡 5:26-27).
- B. 이 시적인 책의 결론적인 기도로서 그리스도의 연인은 사랑하는 분께 부활 능력(가젤과 젊은 수사슴) 안에서 속히 오셔서 온 땅을 가득 채울(계 11:15, 단 2:35) 그분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왕국(향기 그윽한 산들)을 세우시기를 기도한다 – 아 8:14, 계 11:15, 단 2:35.
1. 그러한 기도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연인 사이의 혼인의 사랑 안에서의 연결과 교감을 묘사하는데,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연인인 요한의 기도가 성경의 결론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성한 사랑 안에 있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계시해 주는 것과 같다 – 계 22:20.
  2. “주 예수님, 오십시오.”가 성경에 있는 마지막 기도이다(계 22:20). 성경 전체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는 기도로 결론을 맺는다.
  3. “그분이 오실 때, 믿음은 사실로 바뀔 것이고 찬양이 기도를 대신할 것이다. 사랑은 그림자 없는 온전함으로 완결될 것이고 우리는 죄 없는 영역에서 그분을 섬길 것이다. 그날은 얼마나 놀라운 날이 되겠는가! 주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워치만 니 전집 23 권, 아가 영문판 126 쪽).